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수출입과 조영태 과장(2110-5331), 송정훈 사무관(5333)

2013년 무역여건 점검회의 개최

- 무역 유관기관 및 경제연구소와 환율변동 영향 점검 -

□ 지식경제부는 12월 20일(목) 15:00시 과천청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무역 유관기관 및 경제연구소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2013년 무역여건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였음

* 참석기관 : 대한상공회의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무역보험공사, 무역협회, 한국개발연구원(KDI),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, 현대경제연구원, 산업연구원, 금융연구원, 중소기업중앙회, 중소기업연구원

○ 글로벌 재정위기 지속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,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에 대한 現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

○ 특히, 환율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환율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, 환율하락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

□ 내년 세계경제는 EU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으나, 주요국의 정책대응 강화 등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

○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,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환율하락 등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, 선진국의 내구재 수요 회복, 美·中 경기의 회복추세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

□ 주요기관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대비 3.2~9.8% 증가, 수입은 3.2~10.2%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188~355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

< 주요 기관별 '13년 수출입 전망 >

(단위 : 억불)

기관	수출	수입	무역수지
한국은행 (10월)	5,695 (4.5% ↑)	5,420 (4.8% ↑)	275
KDI (11월)	5,663 (3.2% ↑)	5,308 (3.2% ↑)	355
LG경제연구원 (9월)	5,946 (8.0% ↑)	5,757 (9.5% ↑)	188
현대경제연구원 (10월)	6,026 (9.8% ↑)	5,758 (10.2% ↑)	268
금융연구원 (11월)	5,646 (3.8% ↑)	5,333 (3.2% ↑)	313
한국경제연구원 (8월)	5,909 (5.9% ↑)	5,641 (6.9% ↑)	268
산업연구원 (11월)	5,820 (5.8% ↑)	5,550 (6.3% ↑)	270
중소기업연구원 (11월)	5,787 (5.5% ↑)	5,567 (6.7% ↑)	220
무역협회 (12월)	5,750 (4.6% ↑)	5,450 (4.8% ↑)	300

○ 또한, 올 하반기 들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내년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

- 대기업은 기술경쟁력, 환헤지 등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나, 중소기업의 경우 가격에 민감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

* 중소기업 손익분기점 환율 조사결과 : (대한상의, 10월) 1,090.4 (무보, 12월) 1,102.0
대기업 손익분기점 환율 조사결과 : (대한상의, 10월) 1,076.1 (무보, 12월) 1,059.0

□ 홍석우 장관은 우리나라의 내년 무역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환율하락으로 우리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

○ 이에 따라 수출확대를 통해 국내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무역금융·수출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,

○ 이번 무역여건 점검회의에서 수렴된 기관들의 의견 및 업종별 전망치를 종합하여, 연초에 내년 수출입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